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4

*U.S.-China Competition in the Emerging Stage
: A Perspective of World Information Politics*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하영선 · 김상배 역음

한울
아카데미

책머리에 10

제1부 신흥 무대 미중 경쟁의 분석 틀 —————	17
제1장 21세기 아태 신질서 건축: 신흥 주인공과 무대 / 하영선 —————	18
제2장 신흥 무대 미중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분석 틀의 모색 / 김상배 ———	34
제2부 미중 기술·표준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	61
제3장 미중 반도체 산업 경쟁 / 조현석 —————	62
제4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 인터넷 기업의 도전과 인터넷 주권 이념을 중심으로 / 배영자 — 88	
제5장 미래 군사기술의 발전과 미중 군사경쟁 / 전재성 —————	111
제6장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응전략 / 민병원 ———	136
제3부 미중 무역·금융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	159
제7장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무역 아키텍처 경쟁과 협력: 내장된 자유주의 2.0을 향하여 / 손열 —————	160
제8장 미중 경쟁과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 / 이승주 ———	179
제9장 미중 경쟁과 국제 자본시장의 동조화 / 김치욱 —————	201
제10장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 이왕희 ———	223

제4부 미중 외교·안보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243
제11장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 / 이신화	244
제12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 해군력인가, 해양법인가? / 구민교	266
제13장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전개와 미중 경쟁 / 이동률	287
제14장 강대국 규범경쟁과 정당성 게임: 미중 전략경제대화 담론 분석 / 최은실	310
제5부 미중 매력·규범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335
제15장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와 국제 평판 / 송태은	336
제16장 국내 청중 vs. 국외 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 / 장기영	375
제17장 미중 규범경쟁: 경제발전 규범에 관한 대립을 중심으로 / 유재광	390
참고문헌	421
찾아보기	473

글쓴이(수록순)

하영선 /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 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간 연재했으며, 전파연구회, 정보세계정치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회, 한국외교사연구회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왔다.

김상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 관심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변환과 국가변환 및 중견국 외교의 이론적 이슈와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경제 및 공공외교의 경험적 이슈 등이다.

조현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국제정치이며 주 관심분야는 IT와 국제정치경제 및 신종 군사안보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빅데이터 시대 미국-EU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21세기정치학회보》, 2016), 「디지털 보호주의와 정책 대응」(《평화학연구》, 2017), 「미중 사이버 안보 협약 연구」(《21세기정치학회보》, 2017) 등이 있다.

배영자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 관심분야는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 국제정치경제 등이다.

전재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 관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안보론, 국제정치사 등이다.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을 거쳤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 정치이론과 안보연구, 문화연구, 정보기술의 국제정치 등이다.

손열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직에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주 전공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이며, 최근 저작으로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Palgrave-MacMillan, 2019),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Middle Powers in a Turbulent Region*(Palgrave-MacMillan, 2015)이 있다.

이승주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교의 버클리 APEC 스터디 센터에서 박사후과정을 역임했다. 주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중견국 외교, 통상정책, 사이버 국제정치경제 등이다.

김치욱 /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연구소에 재직하던 바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로서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2009),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2012), "Building Multilateralism on Bilateralism"(2015), 「한국 국제정치경제(IPE)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2017) 등을 저술했다.

이왕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주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공저, 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과 통화전쟁: 통화금융 책략의 관점」(2017), 「일대일로 구상의 지경학: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連俄打中)」(2017) 등이 있다.

이신화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서울국제포럼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위를 취득한 이후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CFIA) 박사후 연구원,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 르완다독립조사위 특별자문관,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와 SIPA 방문강의교수,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PBF) 자문위원, MIT 국제문제연구원(CIS)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다자안보협력, 외교정책, 동아시아국제관계, 국제기구, 인간안보 등이다.

구민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 연구원 및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이동률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이다. 1996년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현대중국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의 영토 분쟁, 중국의 민족주의와 소수민족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국제정치논총》, 2017), 「북핵 위기 대응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모색」(《통일정책연구》, 2017) 등이 있다.

최은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 국제정치이론, 국제규범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이론적 모색: 캐나다-스웨덴-브라질 대외전략의 함의」(2016), 「스웨덴 규범외교와 중견국 외교전략」(2014) 등이 있다.

송태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외교정책, 국제분쟁, 국제협상이며 세계여론 및 국내외 정치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공공외교, 디지털 외교,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주로 세계정치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장기영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및 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분쟁당사자들의 협상전략과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평판이 내전종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이후에는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분야는 국제정치이론(협상이론), 테러리즘 및 내전, 투표행태,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이다.

유재광 /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 라이벌리, 동아시아 국제정치, 남북한 관계, 외교정책 분석 등이다.

책머리에

이 책은 2019년 봄에 20주년을 맞는 <정보세계정치연구회>(이하 <정세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진행했던 협업의 결과물이다. 정보화와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 지식국가, 동아시아 지식질서,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세계정치, 복합 세계정치 등을 화두로 던졌던 공부모임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일곱 번째로 내놓은 작업이다. 사실 지난 20여 년간 <정세연>의 공부는 이들 작업을 기둥 삼아 여러 갈래로 가지를 쳐서 이제는 어엿이 ‘정보세계정치학’이라는 작은 분과의 간판을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대문 앞에 내걸게 되었다고 자평해본다. 이번 일곱 번째 작업에서 17명의 필자가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을 바탕으로 학계에 던지려는 화두는 ‘신흥 무대의 미증 경쟁’이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신흥 무대라 함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했던 기성 국제정치 무대의 지평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무대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영역을 지칭한다. 이른바 정보통신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를 바탕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세계 정치의 무대라는 의미에서 신흥 무대이다. 이러한 신흥 무대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타 부문의 성장을 추동하는 선도 부문(leading secto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흥 무대는 새로운 권력공간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성 국제정치학의 전통 무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흥 무대는 세계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복합적인 권력공간이기도 하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신흥(新興)’이라는 말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創發, emergence)의 또 다른 번역어이다. 미시적 단계에서는 카오스(chaos) 상태였던 현상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질서(order)가 창발하여 거시적 단계에 이르면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용어이다. 이 책에서는 신흥이라는 말을

21세기 초반의 세계정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변환, 즉 권력과 국가 및 질서의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용했다. 또한 신흥이라는 말은 이 책에서 주제로 내건, 미중 경쟁의 새로운 성격, 즉 새로운 권력경쟁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다. 특히 미중 경쟁에서 관찰되는 신흥 권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먼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신흥 권력의 부상이라고 하면, 신흥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세계정치의 권력 이동(power shift), 즉 권력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암시한다. 중국의 부상은 그저 한 국가의 국력 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아태지역 권력구조의 변동을 의미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21세기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패권경쟁 가능성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신흥 권력으로서 중국의 부상은 미래 패권질서의 변동을 야기할 것이며, 그러한 변동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건은 오늘날의 미중 경쟁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의 양상을 되풀이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둘째, 신흥 권력의 부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 국가 행위자가 추구하는 권력의 성격 변환(power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권력 게임을 넘어 기술, 정보, 지식,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비(非)물질적 자원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며, 더 나아가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원과 속성으로 환원되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권력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 변환의 현상은 전통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 보건·질병, 바이오, 식량, 이주·난민, 인권, 개발협력, 그리고 사이버 공간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신흥 권력의 부상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 행위자의 부상이나 또는 이들 국가 행위자의 권력게임의 성격 변환을 논하는 차원 그 이상으로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권력주체의 분산(power diffusion)도 의미한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행위자에 못지않은 '새로운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들로는 다국적 기업, 금융자본, 글로벌 싱크탱크와 지식 네

트위크, 초국적 시민운동 단체, 테러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국가 차원을 넘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등도 사례로 들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성의 국민국가 행위자 자체도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형태의 변환을 겪으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세계정치는 신흥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패권구조의 변동 가능성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질적 변화 가능성, 즉 새로운 권력게임의 출현과 새로운 행위주체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신흥 권력의 부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 권력의 부상은, 제1장 21세기 아태 신질서 건축: 신흥 주인공과 무대에서 주장하듯이, 21세기 한국의 삶에 새롭게 재건축되고 있는 아태 질서에서 발생하는 문명사적 변환을 의미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통 천하질서 아래서 살아왔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 국제질서의 충격에 적응해야만 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동안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진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한국은 새로운 행위주체들이 새로운 권력 게임을 벌이는 신흥 무대의 부상이라는 도전에 맞서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신흥 무대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을 분석했다. 21세기 미중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통 무대 위의 국력경쟁 못지않게 미래 권력공간으로서 신흥 무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인식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는, 신흥 무대에서의 경쟁이 세계정치 전반의 승부를 가늠할 가능성을 전망케 한다. 이러한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는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기술지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금융,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의 경쟁이고,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자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미래 세계질서의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벌이는 복합적인 경쟁이다. 제2장 신흥 무대 미중 경쟁의 정보세계정치: 분석 틀의 모색은 이러한 미중 경쟁을 보는 분석 틀을 기술경쟁과 표준경쟁, 매력경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 같은 복합 경쟁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했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양국이 벌이는 기술과 표준의 경쟁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자 상거래,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승패는 패권의 미래를 결정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의 미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으로 대변되는 정치 지도자들보다 사이버 경제와 산업 분야의 CEO들이 좌우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제2부 미중 기술·표준 경쟁의 정보세계정치에서는 이러한 논제를 검토했다. 특히 제3장 미중 반도체 산업 경쟁은 그중에서도 세계 IT 산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분야의 미중 경쟁을 분석했다. 제4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 인터넷 기업의 도전과 인터넷 주권 이념을 중심으로도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도전하는 과정에 담긴 정보세계정치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미중 경쟁은 국제정치의 안보게임으로도 전이되었다. 제일 먼저 달아오른 이슈는 사이버 안보이다.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은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게 했다. 과잉 안보화 논란까지 야기했던 이른바 ‘중국 해커 위협론’은 2010년대 초중반 미중 관계를 달구었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였다. 제6장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응전략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의 이슈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경쟁은 현실공간의 첨단 군비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최근 드론이나 킬러로봇 등과 같은 무인무기 체계의 발달은 머지않은 미래에 양국 간 로봇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5장 미래 군사기술의 발전과 미중 군사경쟁은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군사적 차원을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나라의 사이버 권력 경쟁은 좀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산업과 통상 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중국산 IT 제품 위협론’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주도하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밀착관계를 의심받아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금지당했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금지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드론업체인 DJI나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 역시 미국 시장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는 안보적 함의가 큰 민군 겸용(dual-use)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벌어졌던, 과거 1990년대 미일 패권경쟁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원에 대한 미중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데이터 안보는 미중 국가안보의 쟁점이 되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데이터 유출의 경계는 중국에서 2016년 ‘인터넷안전법’을 출현시켰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를 검열·통제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인터넷을 대하는 미중 양국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반영한다. 2014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에 맞불을 놓으며 ‘세계인터넷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중 경쟁이 국내 정책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야말로 최근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은 산업-통상-안보-군사-개인정보-법제도-국제규범 등에 걸친 미래권력 경쟁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제3부 미중 무역·금융 경쟁의 정보세계정치는 무역과 금융 분야의 규범경쟁을 다루었다. 제7장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무역 아키텍처 경쟁과 협력: 내장된 자유주의 2.0을 향하여는 아태 지역의 무역 플랫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양자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협정을 둘러싼 미중 경쟁을 고찰했다. 제8장 미중 경쟁과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 연합(EU)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디지털 무역 갈등이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국지화·의무화, 데이터 유통 제한과 필터링, 지적재산권 침해, 로컬 표준 부과와 과도한 테스트 요구 등과 같은 디지털 무역 장벽의 사례들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아태 주식시장과 신흥 금융 서비스업인 핀테크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을 각각 살펴본, 제9장 미중 경쟁과 국제 자본시장의 동조화와 제10장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제4부 미중 외교·안보 경쟁의 정보세계정치는 신흥 무대의 경쟁이 외교안보 분야와 연결되는 맥락에 주목했다. 제11장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 안보경쟁은 역사적으로 유엔 안보리 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의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미중 경쟁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제12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 해군력인가, 해양법인가?는 동아시아의 해양이슈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의 입장 변화와 이에 대

응하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미중 해양패권 경쟁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제13장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전개와 미중 경쟁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축소시켜가고 있는 상황 아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중국의 전략과 그 결과 발생할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14장 강대국 규범경쟁과 정당성 게임: 미중 전략경제대화 담론 분석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나타난 양국의 갈등을 신흥 무대의 규범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흥 및 전통 무대의 복합적인 규범경쟁은, 제5부 미중 매력·규범 경쟁의 정보세계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매력경쟁으로 이어진다. 제15장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와 국제 평판은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의 변화과정을 비교·검토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제16장 국내 청중 대 국외 청중: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중 외교 갈등과 전략은 미중 인권분쟁의 전략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청중과 국제 사회의 청중을 고려하는 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17장 미중 규범경쟁: 경제발전 규범에 관한 대립을 중심으로는 미중 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성장규범’의 정치경제적 담론에 주목하고 이를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 간에 형성되는 ‘규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이 책에서 다룬 미중 복합 패권경쟁의 승부는 과거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그랬듯이 한판 전쟁을 벌이고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오늘날 세계정치의 패권경쟁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부연컨대, 제1장에서 강조했듯이, 21세기 신(新)문명표준의 시대를 맞이하여 벌어지는 미중 경쟁은 단순히 전통 무대에 출연했던 국가 행위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안보, 번영, 문화, 생태, 지식의 신흥 무대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공존 및 공진(共進)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하는 글로벌 및 아태 질서의 구조 변동은, 적어도 무정부 질서(anarchy) 아래 세력균형의 게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세력 전이’의 양상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신흥 권력의 창발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구조 변동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 얽히면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벌이

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홍 권력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직면하여, 미래 한국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근대 국제정치의 전통 무대뿐만 아니라 탈근대 세계정치의 신홍 무대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글로벌 패권경쟁의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건축하려는 글로벌 및 아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생존과 번영의 실마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글로벌 다자외교의 장에서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양자 및 삼자 협상의 구도 속에서 이른바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 중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전통 무대의 부국강병 게임의 틀을 넘어 앞으로의 먹거리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한국에게 신홍 무대의 미중 경쟁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공동 편집자인 하영선 선생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드린다. 아울러 또 한 번의 지적 협업에 기꺼이 동참해준 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직접 집필에 참여한 않았지만 지난 2여 년간 17명의 필자들이 논문의 구상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면서 원고를 다듬어가는 과정에 도움을 준 <정세연>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신홍 권력의 부상과 중견국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016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Social Science Korea)’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 둔다.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세연>의 조교를 맡아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의 이종진·유신우·주연정·알리나 쉬만스카, 석사과정의 조문규·김유정·최용호·김화경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성심껏 이 책의 출판작업을 맡아준 한울엠플러스(주)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18년 6월 8일

김상배